코로나 대응에…미국 국가부채 3경6000조원 사상 최대

미국 국가 부채가 사상 최초로 3경6000조원을 넘겼다.  
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전날 기준 국가 부채가 30조100억 달러(약 3경6282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경제가 코로나19의 유행에 타격을 받기 직전인 2020년 1월 말보다 거의 7조 달러(약 863조원) 늘어난 액수로 역대 최대다.  
미 의회는 코로나19 기간 경제 충격에 대응해 소상공인과 실업자, 세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조 달러 규모 지출을 승인했다.  
미 의회예산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미국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7%였지만, 2020 회계연도에는 15.0%, 2021 회계연도에는 12.4%였다. 미국의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재정적자는 3조1300억 달러(약 3784조원), 2021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재정적자는 2조7700억 달러(약 3348조원)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하강에 대응해 증세가 아닌 방법으로 지출에 관여한 것이 적절했다고 굳게 믿는다"면서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부담에 대해 "(낮은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2/95624/